

3. 산천 평야의 지명유래*

1) 조계산(曹溪山)

조계산은 영산으로 송광사(松廣寺)와 선암사(仙巖寺)를 동서 양쪽에 안고, 승주읍·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상사면을 품고 있다. 산맥이 내장산에서 뻗어내려 무등산, 사자산, 별교의 금화산, 계족산으로 힘차게 이어오다 광양의 백운산에서 불끈 솟아 그 자락을 남해에 드리운 호남정맥(湖南正脈)의 산이다. 섬진강 지류인 보성강을 끼고 모후산과 마주하고 있다. 옛날에는 서쪽 봉우리를 송광산, 동쪽의 장군봉을 청량산이라고 불렀으나 고려 때부터 조계산으로 통칭되었다.

신라 말에 혜린선사(慧麟禪師)가 길상사(吉祥寺)를 개창하고 산의 이름을 송광산이라 했다. 그리고 보조국사(普照國師)가 정혜결사(定慧結社)를 하고 수선사(修禪社)를 길상사터에 중창했는데, 1204년에 회종이 조계산 수선사로 바꾸었다.

임금께서 듣고 이를 가상히 여겨 산의 이름을 조계산으로, 사(社)의 이름을 수선사로 바꾸어서 임금께서 제액(題額)을 써서 이를 포장(褒獎)하셨다.

이 기록으로 보아 1204년까지는 송광산 수선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절의 이름이 송광사로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려 말에 문인들의 입에 ‘송광사’로 회자되면서 절이름으로 굳어져 오늘에 이른다. 송광면 출생으로 송광사에서 수계하고 일생을 그곳에서 보내다 열반한 지주 인암(仁庵)은 시대에 따라 절이름이 신라 길상사, 고려 수선사, 조선 송광사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송광산은 우리말 이름 ‘솔메’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이두식 표기는 옛 지명에 흔하고 현재 면단위 이하의 마을에서도 흔하다.

예를 들면 우산(牛山)은 ‘소메’, 대곡(大谷)은 ‘한실’, 이읍(梨邑)은 ‘배골’, 대구(大龜)는 ‘한구미’ 등으로 한자의 음과 뜻을 취해 표기한 것이다. 송광면 사람들은 솔을 ‘솔갱이’라고 부른다. 소나무가 무성한 산이란 뜻으로 ‘솔갱이메(솔강이메)’라고 불렀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솔’을 송(松)으로 뜻옮김을 하고 ‘갱이(강이)’를 광(廣)으로 소리옮김을 해 송광산이란 이름을 찾아낸 것이다.

구전하는 전설에는 ‘송(松)’을 ‘십팔공(十八公)’으로 파자(破字)하여 송광사에서 18분의 국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와 조선조에 16분의 국사가 배출되었으니, 앞으로 2분의 국사가 더 배출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스님들이 용맹정진하고 있다. 임석진(林錫珍)의 『송광사지(松廣寺誌)』에도 “송광(松廣)에 대한 고해(古解)는 본산(本山)이 장차 18공을 배출(輩出)하여 불법(佛法)을 널리 펼 승국(勝局)임에 말미암았다 한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괴벽한 미신으로, 점성가들의 풀이일 뿐이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는 사람이 더 많다.

포광(包光) 김영수는 “산에 솔갱이(솔의 방언)가 가득 차 당시 지원민(地元民)들이 이 산을 솔매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조국사의 제자 수우(守愚)가 나복산(蘿菴山, 모후

* 제4절 3항목은 진인호(陳仁鎬) 집필임.

산)에서 나무로 솔개를 만들어 날렸더니 한 마리는 담양의 추월산에, 또 한 마리는 여천의 흥국사 자리에, 나머지 한 마리는 송광사 국사전 뒷등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그곳에 절을 세우고, 송광사 국사전 뒷등을 치락대(鷗落臺 : 원감국사 시집에는 진락대라 함)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솔개’와 ‘솔갱이’의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송과 치로 뜻움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력(佛力)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무 솔개가 날아가 절을 세울 만만 복지에 앉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설화한 송광사 중창 사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6세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沖止 : 1226~1292)가 ‘진락대(眞樂臺)’라고 표현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돼 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선암사 기록을 살펴보면 정문에 ‘조계산 선암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고 그 뒤편에 ‘고청량산해천사(古淸涼山海川寺) 안택희서(安宅熙書)란 현판이 걸려 있다.

「조계산 선암사 제육창건기」에는,

신라 법흥왕 때 사문 아도(阿度)가 일선군(一善郡)에서 왔는데 예관한 김상흠이 성적과 변수하던 곳을 사모하여 기도하다가 꿈에 기별을 받고 비로소 가람을 창건하여 청량으로 이름하고 해천사로 일컬었는데 다 가르침에 따른 것이다.(용암해, 1828년 대웅전 안 현판)

라고 기술돼 있다. 신라의 일선군에서 아도가 백제 땅인 이곳에 찾아와 절을 짓고 청량산 해천사라 이름했으니, 신라 때부터 고려 중엽까지 선암사에선 청량산으로, 송광사에선 송광산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조계산으로 통칭하고 있다.

신라 말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선암사를 중창하고 선암사라고 명명하면서 산이름을 무엇이든 했을까? 청량산 선암사였을까? 이에 대한 기록이 없다. 「조계산 선암사 제육창건기」에는

경덕왕 때 도선국사가 동방의 비보도를 살펴보고 중창하고 절이름을 선암사라고 바꾸었다.

고 했을 뿐 산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이는 「조계산 선암사 제육창건기」의 기술이므로 조계산 선암사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록자가 산이름을 청량산에서 조계산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절이름만 바꾸었다고 서술했을 가능성도 있고, 청량산 해천사에서 선암사로 절이름만 바꾸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고려 선종(宣宗) 때 중국에 들어가 불경을 가지고 환국한 대각국사(大覺國師)가 선암사를 다시 중창했을 때를 기록한 「조계산 선암사 사적비명병서(事蹟碑銘并序)」는

그뒤 고려 때에 이르러 대각국사가 중창하고 산이름을 조계산이라고 바꾸고 7구역에 선원을 세워서 나라에서 조계종을 존중하게 되었는데, 선종이 가르침을 존경하는 것이다.⁵⁾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기록을 믿는다면 의천(義天) 대각국사가 조계산으로 산이름을 바꾸었고, 그 100년 뒤에 보조국사가 서쪽 계곡에 수선사를 중창했을 때는 고려 조정에 조계산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희종이 조계산 수선사란 제액을 친히 써서 내려주었을 가능성이 짙다.

5) 남도문화연구소, 『충평속지』, 1988, 161쪽.

도선국사가 중창하고 왜 절이름을 바꾸었는가?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의 비조가 도선국사이므로 그 이유가 자못 크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국사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그 이유를 직접 대면해 들듯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선암사의 기록과 구전하는 설화를 고찰하면 그 까닭을 추측할 수 있다. 대각암 뒤 장군봉에는 ‘배바구’가 있는데 옛날에 거기에 배를 매고 살았다고 배바위라 부른다. 그 전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득한 옛날 착한 할아버지와 7살 난 손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착하고 순진한 노인이었으나 가난했다. 노상 지게에다 동냥자루를 동여 매고 손자를 지게에 얹어 지고 다니며 동냥을 했다. 그러나 공짜 동냥은 하지 않았다. 반드시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었다. 마당을 쓸어주거나 두엄을 내주어 주인에게 은혜를 갚았다.

어느 따뜻한 봄날 동냥을 해서 막 집에 돌아와 마루에 걸터앉았는데 동냥승이 찾아와 시주를 호소하자, “가진 것이 없소. 오늘 동냥해온 걸보리가 저 마루에 있으니 그거나 시주하리다.” 하고 자루째 부어주었다. 스님은 하늘을 우러러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노인장만 같으면 무슨 재앙이 있으리오!”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요?” 스님은 또 한숨을 쉬고 나직이 말했다.

“인심이 사나우니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요. 저 골짜기의 돌부처 코에서 피가 흐르는 날 여기는 물바다가 될 것입니다. 노인장은 그날이 오면 배바위까지 올라가 재앙을 면하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말을 마치자 스님은 온데간데가 없었다.

노인은 스님 말을 그대로 믿고 어린 손자에게 매일 아침 돌부처 코에 피가 났는가, 안 났는가를 살피게 했다. 3년을 그렇게 했다. 마을사람들은 노인이 노망을 해서 어린 손자만 고생시킨다며 쑥덕거렸다. 그런데 마을의 뒷곳은 청년들이 이 노인을 골탕먹일 양으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주먹으로 제 코를 쥐어박아 피가 나게 하고 그 피를 돌부처 코에 발라놓았다.

손자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달려가 보니 피가 흐르지 않는가!

“할아버지, 났습니다. 피가... !”

손자는 헐레벌떡 뛰어와서 아뢰었다. 노인이 달려가 보니, 과연 피가 가슴팍까지 흘렀다. 곧 마을로 내려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돌부처에 피가 났소. 재앙을 피해 산으로 갑시다! 물바다가 됩니다!” 하고 호소했지만 주민들은 노망을 해서 손자를 고생시키더니 이제는 미쳤다고 몰아세울 뿐만 아니라 재수없다고 내쫓아버렸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손자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점심 때가 되었을까? 산허리를 돌아 올라가는데 한 소녀가

“아이고 다리야! 인자 괜찮겠지?” 하고 바구니를 끼고 가는 것이 보였다. 노인은 뒤쫓아가 앞질렀다. 그러자 소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노인은 그냥 지나 몇 걸음 건다가 같이 가자고 하려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어느 새 물이 소녀의 바구니 밑까지 차오른 것이 아닌가! 온 마을은 물에 잠겨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것도 보였다.

“아가, 어서 가자, 물이 차 오른다.” 외쳤지만 소녀는 울상이 되어 꼼짝도 안 했다. 소년이 소녀를 일으켜 세웠다. 셋이 커다란 바위에 올라 마을을 바라보니 허우적거리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퍼런 물만이 출렁거렸다.

이 바위가 배바위이다. 배를 댔던 쇠고리가 해방 후까지도 박혀 있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송광사 스님들은 말한다.⁶⁾ 순천시 일원이 바다였을 때 선암사 뒤 바위, 곧 ‘배바구’에서 배를 매고 고기를 잡아 먹었기 때문에 배바위라 했으니, 이 전설대로라면 한

6) 진인호, 『송광향지』, 1986.

자로 뜻움김 하여 선암(船岩)이 될 것인데, 선암(仙岩)이라 한다. 선(船)과 선(仙)의 음이 같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선(仙)자로 바꾸어 썼음직하다. 이러한 예는 흔하다. 원래 주암(住岩)의 우리말 이름은 ‘배티재’이다. 이를 주암(舟岩)으로 뜻움김 했다가 배는 짐을 많이 실어야 든든히 항해를 한다고 여겨 사람이 많이 머물러 살라고 주(住)자로 바꾸어 주암으로 개명했다.

그런데 「선암사 사적기」를 보면

도선국사가 본국에 돌아와 일일이 가르침과 같이 했다. 이 선암사가 일대 비보소(裨補所)가 된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삼암이 있는데, 영암군 월출산의 용암(龍岩), 광양현 백계산의 운암(雲岩), 승평부 조계산의 선암이다. 그 바위에다 탑과 절을 세웠다.⁷⁾

이렇게 기술했던 것으로 보아 해천사를 선암사로 바꾼 까닭을 알 수 있다. 장군봉에 있는 배바위에 유연성을 두고 선암사라고 개칭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암(船岩)이라 해야 할 텐데 선암(仙岩)이라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전남 순천군 조계산 선암사 사적」에

선암사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높이가 10여 길이나 되고 마치 솟돌 같다. 시골 사람들이, 옛날에 선인(仙人)들이 바둑 두던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암이라고 절의 이름을 하였다.⁸⁾

는 기록이 있다. 절이름을 바위이름 그대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선이 바둑을 두던 곳이라 선암이라 명명한 연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이 대각암의 누각에 대선루(待仙樓)라고 현관이 걸려 있다. 또한 승선교 부근에 강선루(降仙樓)가 있고 순천 시내, 곧 동순천 다리 머리에 환선정(喚仙亭)이 있었다.(지금은 죽도봉에 있다)

또 다른 구전설화를 보면 호암(護岩) 스님이 배바위에서 문수보살의 현신(現身)을 만나보려고 백일기도를 했지만 문수보살을 보지 못하자, 불심(佛心)이 약한 것을 탄식하며 투신자살을 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죽었을 자신이 예쁜 아가씨의 치맛자락에 안겨 있었다. “스님! 참으시오. 어찌 중생제도를 안 하시려 목숨을 버리십니까?”

아가씨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하며 땅에 몸을 내려놓았다. 스님이 자초지종을 말하자 아가씨가 방긋 웃으며 “보고도 모르시오?” 하자, 스님은 문수보살의 현신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보살님!” 하고 절을 올리고 보니 아가씨는 온데간데없었다. 그래서 스님이 크게 깨달아 선암사를 중창했고, 승선교와 별교의 홍교(虹橋)를 놓았다고 전한다.

조계산 연원(演源)은 무엇인가? 조계산은 중국의 영남(嶺南) 소주부(韶州府 : 현재 광둥성의 곡강현)에 있는 산이다. 육조(六祖)대사가 황매(黃梅)의 법인(法印)을 받았을 때 조후촌(曹喉村)에 사는 조숙량(曹叔良)이 그를 흠모해 보림(寶林)의 옛터인 쌍봉(雙峯) 아래 대계(大溪) 벌에 절을 지어주니 육조대사가 그 은혜를 못 잊어 조숙량의 성인 ‘조’에 쌍봉 대계의 ‘계’자를 결합하여 조계산이라 이름한 데서 시작되었다.

홍양(고흥)과 영암에도 조계산이 있고 그 절이름을 송광사라고 했다. 현재도 송광사는 전주와 고흥에 있다. 조계산은 원래 송광산과 청량산으로 나누어 불렀는데 고려 때 조계산으로 통칭되었다. 그 연원은 당나라 때 육조대사가 명명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였

7) 「조계산 선암사 사적」, 『조선사찰사료』상, 282쪽.

8) 승주문헌집편찬위원회, 『승주문헌집』, 564쪽.

으며, 한국불교의 종산(宗山)이 되었다.